

영국 언론이 뽑은 올해의 책

「선데이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선정 93년의 책

오애리

문화일보기자

93년을 마감하면서 영국의 선데이 타임스紙와 파이낸셜 타임스紙가 각각 ‘올해의 책’을 선정, 발표했다. 금년 한해동안英출판계를 빛냈던 책들의 면모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선데이 타임스〉

[문학]

패디 클라크 하하하

로디 도일 / 세커귀

영국의 노벨문학상으로 불리는 부커賞 수상작. 아일랜드 태생의 작가 로디 도일(35)은 더블린에서 교사생활을 하던 1987년 「커미트먼트」로 데뷔, 이후 「스내퍼」 「트러」 등의 작품으로 영국 문단에서 인정을 받았다. 「패디 클라크 하하하」는 더블린 빈민가에서 좀도둑질을 하며 떠돌아다니는 불량소년 클라크를 통해 부모의 이혼이 어린 자녀를 어떻게 황폐하게 만드는가를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다.

도둑신부

마가렛 애트우드 / 블룸스베리

캐나다 최고의 여류작가로 꼽히는 애트우드(53)의 완숙한 문학세계를 보여주는 소설. 50대 초반의 여자 친구 네 명을 중심으로 남녀간의 갈등, 우정, 질투, 증오 등을 섬세하게 해부해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품이다.

아드리안 몰 ; 방탕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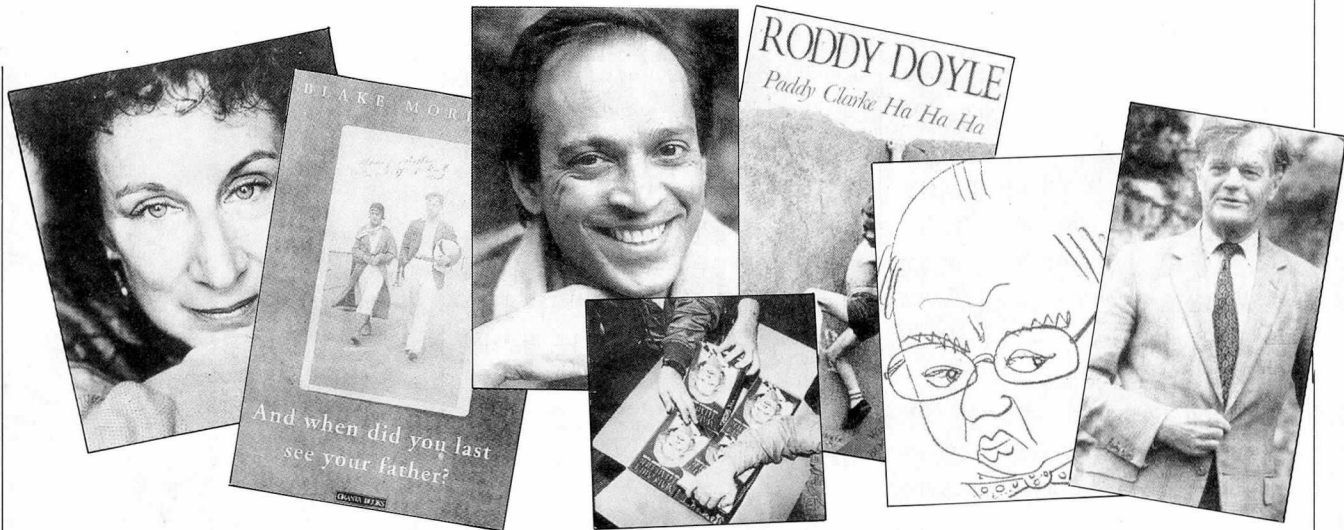
수 타운센드 / 매튜인

14세 소년 아드리안 몰의 성장과정을 다룬 일기체 소설 「비밀일기」의 세번째 속편. 타운센드는 1982년부터 몰의 생활과 고민을 다룬 연작소설 「비밀일기」 「아드리안 몰 ; 성장의 고통」 「아드리안 몰의 진짜 고백」을 발표해왔다. 이번 작품에서는 BBC에 自作 시를 보내고 대처총리에게 교육문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던 당찬 소년 몰이 20대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느끼는 性的 갈등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그리고 있다.

海運뉴스

애니 프루 / 포스 에스테이트

93년 全美도서상, 펜/포커너 문학상 수상작.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섬에서 살고 있는 어수룩한 남자 주인공 퀴일파드의 드센 아내를 중심으로 섬주민의 생활을 유머러스하게



영국언론의 유력지 「선데이 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가 선정한 1993년의 책과 그 저자들.

다룬 작품이다. 일곱차례의 현지답사를 통해 재현한 뉴펀들랜드 지역의 자연환경, 方言, 어민 특유의 불안정한 생활이 생생하다는 評.

적당한 남자

비크람 세스 / 피닉스 하우스

인도 출신 작가 세스(41)가 8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1천4백여 페이지의 大作. 라타 메타란 여성이 남편감을 찾는 과정을 통해 인도의 전통적인 가족관계, 사랑, 결혼, 출생, 죽음, 독립직후 인도의 정치적 혼란, 외국인과의 마찰 등을 그리고 있다. “타지마할처럼 아름다운 소설” “말년의 톨스토이 소설과 비견되는 탁월한 문학성” “현대소설의 신뢰를 회복시킨 걸작”이란 극찬을 한 몸에 모은 작품이다.

門의 눈(目)

팻 바커 / 바이킹

1차대전을 배경으로 당시 영국사회를 해부한 소설.

단테의 드림 키트

더글라스 던 / 페이버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더글라스 던의 시집. 이해하기 쉽고 위트가 담긴 문장은 던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비소설]

다우닝街 시절

마가렛 대처 / 하퍼콜린스

대처 前영국총리의 회고록. 1975년 에드워

드 히스로부터 보수당 당권을 물려받은 이후 영국 역사상 최장기 총리로 활동했던 대처의 정치적 역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고르바초프, 레이건 등 전세계 지도자들과의 교류에 얽힌 이야기가 흥미롭다. 이 책은 키신저 前미국국무장관이 서평에서 “소신있는 정치인의 인류에 대한 메시지”로 극찬한 데 비해, 이코노미스트誌는 “失權에 상처받은 한 여인의 분노와 좌절이 담긴 정치적 用辭”로 혹평해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주네

에드먼드 화이트 / 샤토

자전적 소설 「도둑일기」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장 주네(1910-86)의 傳記. 사생아로 태어나 도둑, 男娼으로 파리 뒷골목을 전전하다가 작가로 극적인 변신을 한 주네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주네가 변덕스럽고 자기도취성향이 강한 습관성 거짓말장이긴 했지만 마르셀 프루스트 이래 가장 탁월한 문학성을 지닌 작가였다고 평가했다.

언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았지?

블레이크 모리슨 / 그랜타

아버지의 죽음으로 겪어야 했던 상실감을 솔직하게 고백한 시인 모리슨의 자서전.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을 잔잔하게 이야기해 재미와 감동을 함께 느끼게 만든다.

필립 라킨

앤드류 모션 / 페이버

영국 최고의 현대시인으로 평가받는 라킨 傳記. 평생 독신으로 지내며 사교생활도 거부

하고 무미건조하게 살았던 라킨의 삶과 그의 작품 사이의 관계를 해부하고 있다. 특히 파시스트였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 그의 숨겨진 연인들을 다룬 부분이 흥미롭다.

어린이를 향한 사랑

제임스 키키이드 / 루틀리지

빅토리아 시대 때 어린이들에 대한 성인의 에로틱한 사랑행태를 다룬 연구서.

카드머스와 하모니의 결혼

로베르토 칼라노 / 케이프

고대 그리스 신화의 현대적 의미를 분석한 작품. “神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만큼 재미있게 쓴 것은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쟁의 역사

존 키건 / 허친슨

인간은 과연 무엇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며 어떤 무기를 갖고 싸워왔는가를 분석했다.

電線 위에서 자다

데이비드 그로스만 / 케이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뿌리깊은 반목의 역사를 다룬 르포.

불 ; 체르노빌 이야기

피어스 폴 리드 / 세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마치 스릴러 소설처럼 추적한 작품.

앨런 클라크의 일기들

앨런 클라크 / 와이트펠드

'94 동경 국제서적박람회

'94 동경 서적디자인 및 제본전시회

“
일석이조의 전문을
출판인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

해외에서 개최되는 서적관련 전시회를
전문으로 참관 알선하고 있는 (株)輸進旅行社에서는
1994년 1월 27일~1월 30일까지 동경에서 개최되는
'94 동경 국제 서적 박람회와 '94 동경 서적 디자인
및 제본 전시회에 참관을 원하는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참관단을 모집합니다.

◆ 전시회 개요

구분	94 동경 국제 서적 박람회	94 동경 서적 디자인 및 제본 전시회
기간	1994년 1월 27일~1월 30일	1994년 1월 27일~1월 30일
장소	MAKUHARI MESSE	MAKUHARI MESSE
전시	사전·전집부문/예술부문/문학·문예부문/생활실용서부문/인문사회과학부문/자연과학부문/외국어판부문/어학·학습참고서·아동도서문고부문	서적 전문분야에 걸쳐 디자인 및 제본 상태가 우수한 수상작 약 350여점 전시
후원	일본 서적출판협회/일본잡지출판협회·일본서적판매자연협회/일본 서적도매협회/일본 출판문화교류협회	문부성/통상산업성/동경교육위원회/일본 서적 출판협회/일본 인쇄 산업연합회/일본도서관협회 출판문화 교류 협회

◆ 참관기간

• 1994년 1월 26일~1월 29일(3박4일)

◆ 견학출판사

• 小學館(견학 및 간담회)

◆ 호텔명

• 긴자다이쵸호텔

◆ 참관경비

• 780,000원

◆ 신청 및 접수

• 참가 신청서와 신청금(200,000원)을 (株)輸進旅行社에 직접 또는 온라인 입금(신청서는 FAX 접수도 가능함)

◆ 참관일정

제1일 서울출발, 동경도착, 간다(神田)지역 서점가 견학

제2일 전일전시회 참관

제3일 박람회 및 전시회 참관, 小學館 견학(출판과정 견학 및 간담회)

제4일 신주꾸 소재 '기노꾸니아' 서점 견학, 동경출발

※여행조건

왕복항공료, 호텔 숙박비(2인 1실), 전일정 식사비, 전시회 입장료 기념품비(소학관 견학), 현지교통비 및 안내원 경비, 여행자 보험료 각국 공항세

(株)輸進旅行社 해외전시사업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2번지(뉴힐탑 호텔 8층)

TEL : (02)515-4355, FAX : 516-3577

정치인 클라크의 인생편력과 정치관을 밝힌 자서전.

<파이낸셜 타임스>

[문학]

적당한 남자

비크람세스/ 피닉스하우스

똥똥한 골격

우르술 몰리나르/ 세리프

번역작가로 유명한 작가의 단편집. 페미니즘을 위트있게 다룬 작품들을 수록했다.

교수대로부터의 노래

크리스찬스 모겐스테른/ 예일대

독일의 루이스 캐롤로 불리는 20세기 초 시인 모겐스테른의 시집. 갖가지 동물과 사물을 의인화시킨 시들을 통해 시인의 탁월한 상상력을 살펴볼 수 있다.

내가 부르고 있는 곳으로부터

레이몬드 카버/ 하빌

1988년 50세로 사망한 미국 단편집가 카버의 작품집.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로빈슨 후보를 뽑읍시다

도널드 앤트림/ 하이네만

소규모 미국 도시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인간의 출세욕을 풍자한 소설. 앤트림의 작품은 펄립 로스를 연상케 한다.

초콜릿을 위한 물처럼

라우라 에스퀴벨/ 더블데이

사랑과 음악에 얽힌 인간의 욕망을 그린 멕시코 여류작가 에스퀴벨의 작품. 19세기 말 멕시코 혁명기 때 반항적인 성격의 여성 티타와 목동 출신의 혁명군 장군 간의 사랑이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달콤쌉싸름한 초콜릿」으로 번역출간됐고, 영화로도 소개됐다.

클레오파트라의 여동생

페넬로페 라이블리/ 바이킹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의 여동생과 사랑에 빠졌다면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란 假

想에서 출발해 역사적 사실과 현재를 접목시킨 작품.

[비소설]

해럴드 래스키

크랩닉, 쉬어먼/ 해미쉬 해밀톤

영국 노동당 이론가이자 정치학자인 해럴드 래스키(1893-1950) 탄생 1백주년을 기념해 출간된 연구서. 래스키의 성격과 학문에 대한 태도, 자유주의자였던 그가 노동당 이론가로 활동하며 마르크스주의자로 변모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존슨 박사와 사베지氏

리처드 홈스/ 로터&스틴튼

1774년 시인이자 범죄자였던 리처드 사베지와 전기작가 존슨 간의 기묘한 우정을 다룬 전기.

베르디

메리 제인 필립스-매츠/ 옥스포드대

음악학자인 저자가 수십년에 걸친 연구끝에 내놓은 역사. 베르디에 관한 한 최고의 연구서란 극찬을 받고 있다.

역사와 이미지

프랜시스 하스켈/ 예일대

예술과 역사의 관계를 분석한 작품. 특히 미술작품에 나타난 한 국가의 정치의식과 도덕적 건강상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레닌의 무덤

데이비드 램닉/ 랜덤하우스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과정을 기록한 언론인의 르포.

산책, 문학 그리고 영국문화

앤 윌러스/ 옥스포드대

위즈워드, 제인 오스틴 등 영국작가들의 삶속에서 산책이 갖는 의미, 산책과 작품의 관계를 분석한 특이한 주제의 문학연구서.

이탈리아 전쟁 1943-45

리처드 램/ 존 머레이

2차대전 때 이탈리아軍과 싸웠던 저자의 경험과 당시 목격한 혼란상을 밝힌 자서전.